

한일양국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 분석

A Comparative Study of Working Hour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ull-Time Working Couples

대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가족학과

교 수 조 희 금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 수 이 기 영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교 수 이 연 숙

한국방송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김 외 숙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 Taegu Univ.

Prof. : Cho, Hee Keum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 : Lee, Ki Yo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 : Lee, Yon Suk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 : Kim, Oi Sook

〈목 차〉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length of working hours and its effects on family life for Korean and Japanese full-time working couples.

For this study, the survey used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time diaries(one weekday and one holiday), and the data were collected in the fall of 1995. A subsample of full-time working couples, 82 couples from Seoul and 79 couples from

Tokyo, was us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On average, the weekday working hours of Korean husbands were longer than Japanese husbands (11 hours 31 minutes, 10 hours 52 minutes a day, respectively). Wives in both countries worked almost identical lengths of time (9 hours 2 minutes in Korea and 8 hours 42 minutes in Japan). Working hours of husbands were longer than those of wives in both countries. Husbands' overtime working hours, paid and unpaid, were longer than those of wives in both countries. Almost (90%) of our Korean sample worked 6 days or 5 1/2 days per week, however the majority (69%) of our Japanese sample worked only 5 days per week.

2) More Korean husbands and wives reported that their family life was constrained by wives working hours than their Japanese counterparts did.

3) All wives in both countries reported that the husbands long working hours had effects on quality family time. Korean wives perceived that their working hours had effects on time spent on child care, however Japanese wives perceived that their working hours affected their personal time and housework time. Korean husbands agreed with their wives working hours had effects on time spent on child care, whereas Japanese husbands perceived that their wives working hours impacted on time spent on housework. Korean husbands reported that their working hours negatively affected their personal leisure time. Japanese husbands reported that their working hours negatively affected their sleeping time.

I. 문제제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입노동시간이란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획득의 원천이 되는 시간으로 노동자들의 하루생활은 수입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가정에서는 가장 또는 주부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는 노동자와 기업가 사이의 첨예한 쟁점이 되기도 한다. Mata-Greenwood (1992)는 노동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피로의 수준, 기관의 생산성과 비용, 그리고 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질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나라 근로자의 수입노동시간은 1986년 주당 평균 54.7시간, 1989년 50.7시간, 1995년 49.2시간으로 1980년대까지 제조업근로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0시간 이상으로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에 속하다가 1990년대 들어 주당 50시간 이하로 떨어졌으나, IMF 관리체제 이전까지는 여전히 장시간 노

동국가에 속했다(ILO, 1996). IMF 관리체제의 영향으로 1998년 상반기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이 주당 45.9시간, 월평균 199.2시간으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노동시간을 기록했으나(동아일보, 1998. 9. 2), 1999년 상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어 초과근무시간이 증가하면서 총 근로시간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동아일보, 1999. 5. 27).

일본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1986년 주당 평균 41.1시간, 1989년 41.4시간, 1995년 37.8시간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에 비해 주당 평균 10시간이 적은 수입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다(ILO, 1996).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서방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장시간 노동이 일본 사회의 한 특징으로 부각된 '과로사'의 주된 원인이란 것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던 일본은 1988년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줄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日本労働省, 1990).

노동자의 하루생활은 시간배분에서 융통성이 부족한 수입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수입노동시간은 여러 측면에서 개인의 하루 생활시간 구조 및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남편의 장시간노동은 부부의 대화시간 부족이나 자녀와의 접촉시간 부족, 남편자신의 피로회복과 수면시간의 부족, 취미나 스포츠 등의 여가시간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森ます美, 1988; 이현아 외, 1994). 부인인 취업기혼여성의 장시간노동은 본인의 수면시간을 비롯한 여가시간의 부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노동과 함께 가사노동도 담당하는 이중노동의 부담을 가진다. 또 직장에서의 역할과 부인이나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이중노동 부담이나 역할갈등은 취업 기혼여성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조희금, 1993; 1999)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사이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여러 면에서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로 상이한 근대화와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생활양식이나 생활문화에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양국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생활시간 조사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이기영 외, 1996). 그러나 생활시간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에서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일간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연구들은 공동의 조사나 공동의 생활행동 분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각 국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단순히 시간을 비교하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鈴木泰, 1993; 한경미, 1991).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하면서 상이한 생활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 및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한국과 일본 맞벌이 부부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 부부의 생활시간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그들의 시간사용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양국 맞벌이 부부의 평일과 휴일의 수입노동시간은 어떠하

며,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주당 휴일의 수, 그리고 잔업시간은 어떠한지 분석한다. 잔업시간은 수당을 지급 받는 잔업과 수당 외 잔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근로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국부부의 인식을 분석하여 이들의 생활양식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1) 양국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평일과 휴일의 수입노동시간은 어떠한가?

2) 양국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주당 휴일 및 잔업시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 양국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에 대한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수입노동시간의 가정생활 제약 여부에 대한 인식은 양국 부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수입노동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생활시간에 대한 인식은 양국 부부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수입노동시간

1) 수입노동시간의 정의

수입노동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정의가 간단할 것 같지만, 관점에 따라 통근시간이나 직장에서의 식사시간, 또는 수당을 받지 않고 하는 직장관련일 즉 수당의 잔업시간을 수입노동시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국제노동기구에서 국가간의 비교에 사용하는 평균 실질 노동시간에 대한 정의를 보면, 노동시간은 정규 근무시간과 수당을 받는 잔업시간, 그리고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장소에서 준비하거나 기다린 시간과 작업 중의 간단한 휴식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유급휴가나 공휴일과 같이 임금은 지불

되나 일하지 않은 시간, 직장에서의 식사시간 및 출퇴근 시간은 실질노동시간에서 제외된다(ILO, 1996).

일본의 후지모토(藤本)는 수입노동시간을 노동자 계급의 생활시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일, 즉 일정한 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이라 하고 실제 분류에서는 여기에 부가적인 시간을 덧붙여 수입생활시간이라 하였다. 즉 수입생활시간에 근무시간(공장 내 생활 시간), 통근시간(왕복), 집에서의 근무, 부업·내직 등의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근무시간은 다시 순수한 근무와 근무전후(휴식, 잡담, 용변, 입욕, 잠깐 자는 것 등), 그리고 휴게시간(식사, 휴식, 잡담, 용변, 스포츠, 오락, 조합활동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伊藤七ツ 외, 1983). 즉 일정한 장소에 출근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서부터 다시 집에 돌아 올 때까지의 시간을 수입을 위한 노동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조희금, 1993; 1997). 한편, 수입노동시간에서 직장에서의 휴식이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자 하는 연구들은(伊藤七ツ 외, 1983; 1988; 1993, 한경미, 1991; 이기영 외, 1994; 1996) 수입노동시간에 근무, 집에서의 일, 부업노동, 통근 등을 포함시킨다.

이처럼, 수입노동시간에 대한 정의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입노동시간에 포함되는 생활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으로서 노동시간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실질 노동시간을 다루고, 그 외에 근로자들의 하루가 어떤 생활행동들에 어떻게 배분되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수입을 벌기 위해 투입된 시간을 모두 포함해서 다룰 수 있다.

한편, 수입노동시간의 측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잔업시간이다. 잔업가운데는 수당을 지급 받는 잔업노동시간이 있고, 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잔업시간이 있다. 특히 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잔업시간은 공식적인 노동시간 통계에서는 간과되기 쉬우나 노동자의 가정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다(Mizunoya, 1996). 이러한 잔업시간은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수당을 지급 받는 잔업은 소득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잔업시간을

감소하기가 쉽지 않다(최영기, 1991).

본 연구에서 수입노동시간이란 전일제 맞벌이 부부가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총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적인 근무와 수당 받는 잔업시간을 포함한 직장에서의 근무시간과 직무와 관련된 이동 즉 출퇴근을 포함한 통근시간, 그리고 집에서 하는 직장관련 일이나 재택근무, 부업 등으로 수당의 잔업시간을 포함한다. 그러나 수입을 획득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근무중의 식사나 휴식시간은 수입노동시간에서 제외하였다.

2) 수입노동시간의 성별차이

수입노동시간에 대한 거의 모든 조사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수입노동시간이 적다(Robinson 외, 1997). Hill(1985)은 1981-82년의 미국 전국규모 시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특히 일에 관련된 시간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다. 수입노동시간은 전일제 취업기혼여성이 주당 39.08시간으로 전일제 취업기혼남성의 주당 48.62시간보다 적다. 일본 근로자 부부의 생활시간을 조사한 伊藤와 天野 등의 연구에 의하면(1988; 1993),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평일 평균 수입노동시간은 1985년 남편 11시간 28분, 부인 8시간 37분이고, 1990년에는 남편 9시간 57분, 부인 8시간 58분으로 나타나서 부부간의 수입노동시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92년 조사원(이기영 외, 1994) 우리 나라 맞벌이 부부는 남편 11 간 15분, 부인 8시간 20분의 수입노동시간을 가지며, 1996년 조사된 부인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은 남편 11시간 17분, 부인 10시간 33분으로 나타나서(조희금, 1997), 전일제 취업주부라 할지라도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에 비해 적었다.

이처럼 수입노동시간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Gemer(1990) 등은 남녀의 수입노동시간은 결혼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이 결혼상태에 따라 차이가 큰데 비해 남성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즉 이혼을 한 여성들은 이혼 2년 전부터 수입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재혼을 하면 그 이후부터 수입노동시간이 감소하지만,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은 결혼상태 변화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 Shelton(1992)의 연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은 기혼남성의 77.4%에 불과하나 미혼여성은 미혼남성의 91.9%에 달하는 수입노동시간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녀의 수입노동시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다른 변수를 통제하면 수입노동시간에서 성별 차이는 사라졌다. 그러나 결혼지위에 따라 수입노동시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은 부인이라는 지위가 수입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데 반해, 남성은 남편이라는 지위가 오히려 수입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 자녀의 수도 남녀의 수입노동시간에 다르게 영향을 미쳐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은 증가했다. 이런 결과는 결혼이나 자녀가 남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고, 여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시간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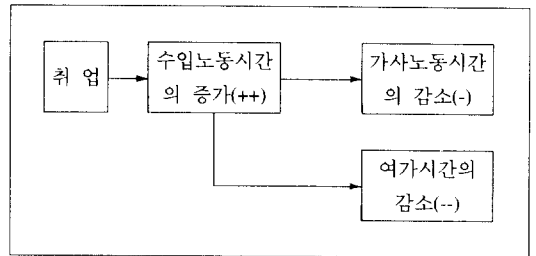
이처럼 가사노동이나 가정에서의 책임을 전담하는 일은 기혼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적은 것은 노동능력에서의 남녀차이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남녀간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伊藤セツ, 1994).

2.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수입노동시간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를 수반하지만, 소득의 증가를 위해서 수입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그 증가된 수입의 혜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문숙재, 1995). 즉, 수입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자신의 생활시간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편들의 장시간 노동은 자신의 여가시간을 격감시키고, 많지 않은 가사노동시간을 없애며 부인의 생활시간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고, 가사분담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편의 장시간 노동은 가정내 성별 분업을 더 고정화시킨다는 것이다(森ます美, 1988). 남편은 자신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개인적인 여가나 수면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데 반해, 부인은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족단란이나 자녀돌보기 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이현아 외, 1994; 조희금, 1997).

미국인의 1965년에서 1985년에 걸친 시간사용을 분석한 연구에서 로빈슨(Robinson, 1997)은, 여성의 취업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설명했다. 즉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수입노동시간의 증가를 가져오고, 수입노동시간의 증가는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기혼여성은 가사노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다. 결국 기혼여성의 취업은 이들의 여가시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여성의 취업이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출처: Robinson 외(1997), *Time for Life*, 103쪽

한편, 취업기혼여성의 긴 수입노동시간은 요일에 따라 달리 영향을 미치는데, 평일에는 가사노동시간에 그리고 휴일에는 여가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미, 1991; 조희금, 1993). 하지만 취업한 기혼여성은 평일에도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가장 취약한 여가활동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김외숙, 1991).

이처럼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의 단축은 가정생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특히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부부간에 생활시간 구조를 조정하므로써 가정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森ます美, 1988; 伊藤, 199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평일과 휴일 수입노동시간은 어떠한지, 부인이 전일제로 취업한 경우에도 남편과 부인 사이에 잔업을 포함한 수입노동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또 이러한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한국과 일본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시간일지표(평일과 휴일 각 하루씩)와 질문지이다. 조사도구는 '1995년 한일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한일양국의 연구자들이 공동회의를 거쳐 완성하였다¹⁾. 시간일지표나 질문지는 남편과 부인용을 따로 구성하였다. 시간일지표를 사용하여 조사된 시간사용 가운데 수입노동시간은 직장에서의 근무, 집에서 하는 직장관련 일이나 부업, 통근 등의 세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근무중의 식사나 휴식시간은 수입노동시간에서 제외되었다. 질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내용을 묻는 문항들과, 4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된 성역할 태도에 관한 문항 1개, 자신 및 배우자의 수입노동시간에 관한 인지, 제약여부, 또 배우자 및 자신의 직장생활이 각자의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이 각각 1문항씩이며, 직장에서의 잔업에 관한 것으로는 수당 받는 잔업과 수당 외 잔업에 관한 주당 잔업시간과 잔업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각각 2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18세 이하의 자녀 1명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 남편과 그 부인으로서 한국의 경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이며, 일본의 경우는 도쿄(東

京)시에 거주하는 부부이다.

조사대상자 부부는 부인의 취업형태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전업주부 가정으로 나누어서 한국은 214쌍, 일본은 136쌍이 면접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 부인이 전일제로 취업한 맞벌이 부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한국 82쌍, 일본 79쌍 부부의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는 한일양국이 동일한 시기인 1995년 10월 면접법과 피조사자기록법을 병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조사된 자료는 사전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코딩하여 디스켓으로 교환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포, 백분율 및 평균을 산출하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남편과 부인의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한국과 일본의 조사대상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연령을 보면 한일 공동으로 30대가 가장 많다. 한국 남편의 평균연령은 37세이고 부인은 35세이며, 일본의 남편은 39세 부인은 38세로 한국의 부부가 일본의 부부에 비해 2-3세 젊다.

교육수준을 보면 한일 모두 남편의 교육수준이 부인보다 높다. 일본의 남편은 한국의 남편보다 대졸 이상 비율이 높다. 한국의 부인은 일본의 부인에 비해 고졸과 대졸이상의 비율이 많으나, 일본의 부인은 전문대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에서 여자 전문대의 비율이 높은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양국 맞벌이 부부의 직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무직과 전문기술직의 비율이 높다. 그 가운데 사무직은 남편보다 부인의 종사비율이 높으며, 한국 부부보다 일본 부부의 종사비율이 높았다. 즉, 한국 남

1) 일본측 공동연구자들은 伊藤セツ, 天野寛子, 堀内かおる, 天野晴子を 포함한 총 8명이다.

편의 29.3%, 부인의 39.0%와 일본 남편의 39.5%, 부인의 47.4%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 한국의 남편은 일본의 남편에 비해 관리직과 판매서비스/노무직의 비율이 높으며, 한국의 부인도 일본의 부인에 비해 판매서비스/노무직의 비율이 높았다.

한국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남편은 월 101만원 - 150만원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부인은 54.9%가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본의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월 35-50만엔의 소득을 가진 비율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부인의 월

소득은 25-35만엔이 39.2%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즉 한일양국 모두 전일제 부부의 소득은 남편이 아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부인이 직업을 갖지 않은 전업주부 남편과 비교하면, 전일제 맞벌이 가정의 남편이 전업주부 가정의 남편에 비해 소득이 낮다(天野寛子 외, 1996).

양국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매우 찬성(1점)에서 매우 반대(4점)에 이르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한국 남편은 일본 남편에 비해($t=-4.48, P<.001$),

<표 1> 한일양국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일반적 특성

집 단		한 국				일 본			
		남 편		부 인		남 편		부 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연 령	20~29	8	9.8	19	23.2	3	4.1	8	10.7
	30~39	46	57.3	46	56.1	38	51.3	37	49.3
	40~49	22	36.8	16	19.5	28	37.8	26	34.7
	50세 이상	5	6.1	1	1.2	5	6.8	4	5.3
	평균(세)	36.8		34.8		39.4		37.8	
교육수준	중졸이하	2	2.5	3	3.8	1	1.4	1	1.4
	고졸	14	17.5	37	46.2	15	21.1	22	31.0
	전문대졸	10	12.5	12	15.0	3	4.2	27	38.0
	대졸 이상	54	57.1	28	35.1	52	73.2	21	29.6
직 업	판매서비스/노무직	13	15.9	23	28.1	7	9.2	3	3.9
	사무직	24	29.3	32	39.0	30	39.5	36	47.4
	전문기술직	25	30.5	23	28.1	24	31.6	26	34.2
	관리직	20	24.4	1	1.2	11	14.5	2	2.5
	기 타	0	0	3	3.6	4	5.3	9	11.8
소 득	100만원 이하	13	15.9	45	54.9	-	-	-	-
	101~150만원	33	40.2	25	30.5	-	-	-	-
	151~200만원	25	30.5	9	10.9	-	-	-	-
	200만원 이상	11	13.4	3	3.7	-	-	-	-
	8만엔 미만	-	-	-	-	2	2.8	5	6.8
	8~15만엔미만	-	-	-	-	0	0	2	2.7
	15~25만엔미만	-	-	-	-	10	13.5	18	24.3
	25~35만엔미만	-	-	-	-	19	25.7	29	39.2
	35~50만엔미만	-	-	-	-	30	40.5	18	24.3
	50만엔 이상	-	-	-	-	13	17.6	2	2.7
성역할 태도**		2.27		2.74		2.78		3.32	

* missing data의 처리로 변수별 빈도 수에 차이가 있음

** 성역할 태도는 4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점수로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한국 부인은 일본 부인에 비해($t=-4.61, P<.001$)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한일양국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

1) 평일과 휴일의 수입노동시간

〈표 2〉 한일양국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

(단위 : 시간:분)

	한 국		일 본	
	남 편	부 인	남 편	부 인
평일 수입노동시간				
근 무	9:40	7:30	9:13	7:39
집에서 하는 직장일/부업	0:06	0:08	0:10	0:04
통 근	1:45	1:24	1:29	1:00
평일 소계	11:31	9:02	10:52	8:42
휴일 수입노동시간				
근 무	0:33	0:21	0:19	0:06
집에서 하는 직장일/부업	0:05	0:00	0:21	0:10
통 근	0:11	0:03	0:04	0:01
휴일 소계	0:49	0:24	0:44	0:17

한일양국 맞벌이 부부의 평일과 휴일 수입노동시간은 〈표 2〉와 같다. 한국 남편의 평일 수입노동시간은 9시간 40분의 근무시간과 1시간을 45분의 통근시간을 포함한 11시간 31분이며, 일본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은 9시간 13분의 근무시간과 1시간 29분의 통근을 포함하여 10시간 52분으로 한국의 남편에 비해 39분이 짧다. 즉 한국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은 일본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고 통근시간도 길었다. 한국 부인은 일본 부인에 비해 전체적인 수입노동시간이 긴 편이나 근무시간과 통근시간에 차이가 있다. 한국 부인의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7시간 39분의 근무시간을 갖는 일본 부인보다 짧으나, 통근시간이 일본보다 29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양국 모두 부인들의 수입노동시간은 남편들의 수입노동시간보다 짧았다. 즉 정규근무시간뿐 아니

라 통근시간도 남편들이 길었다.

휴일의 수입노동시간 역시 한국의 맞벌이 부부(남편 49분, 부인 24분)가 일본 맞벌이 부부(남편 44분, 부인 17분)의 수입노동시간보다 길었으며, 양국 모두 남편들의 수입노동시간이 부인의 수입노동시간보다 길었다.

전일제 취업부부라 할지라도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이 부인의 수입노동시간보다 긴 수입노동시간의 남녀차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대부분의 시간사용 조사 결과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남녀의 성에 따른 역할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Hill, 1985; Gerner 외, 1990; Shelton, 1992; Robinson 외, 1997; 이기영 외, 1994; 조희금, 1997; 伊藤 외, 1983, 1988; 天野 외, 1993; NHK, 1995)

2) 한일양국 맞벌이 부부의 주당 휴일

한국 맞벌이 부부의 평일 수입노동시간이 일본 부부에 비해 길뿐만 아니라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주당 휴일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일본보다 훨씬 길어진다. 즉, 한국의 맞벌이 부부는 80%이상이 주 1일이나 1일 반 휴무를 하고 있으나, 일본의 부부는 대부분 매주 2일이나 격주 2일의 휴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이는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인데 반해, 일본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양국 모두 남편에 비해 부인의 휴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부부 가운데 1주일에 1일 반의 휴일을 갖는 비율은 남편 43.8%, 부인 47.7%로 부인의 비율이 높으며, 1주 1일의 휴일은 남편 47.5%, 부인 30.8%로 남편의 비율이 높다. 일본 역시 매주 2일의 휴일은 남편 63.2%, 부인 76.6%로 부인의 비율이 높고, 격주 2일의 휴일은 남편 14.5%, 부인 10.4%로 남편의 비율이 높다. 양국간에 나타나는 이런 차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법정노동시간이 주당 44시간으로 주 1.5일의 휴무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일본은 법정노동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주 2일의 휴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3〉 한일양국 맞벌이 부부의 주당 휴일

(단위 : %)

주당 휴무	한 국		일 본	
	남 편	부 인	남 편	부 인
1주일에 1일	47.5	30.8	10.5	6.5
1주일에 1일 반	43.8	47.7	2.6	1.4
격주로 2일	3.7	7.7	14.5	10.4
매주 2일	1.3	4.6	63.2	76.6
격주로 1일	3.7	4.6	-	-
기 타	-	4.6	9.2	5.2

본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위자
 율의 차이는 실제 산업에 참여한 행위자의 산업시간
 에 영향을 미친다.²⁾

즉, 수당을 지급 받는 산업은 38.0%의 일본 남편
 들이 참여하여 30.5%가 참여한 한국의 남편에 비해
 참여율도 높고 참여한 사람들의 노동시간도 길었다.
 수당의 산업시간은 한국 남편들이 46.3%, 일본 남편
 이 41.8%로 한국 남편이 행위자율은 높으나 행위자
 들의 수당 외 산업시간은 8시간 44분으로, 일본의
 주당 8시간 59분보다 짧았다.

부인들의 산업시간은 수당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에 관계없이 남편들보다 적었다. 부인들의 전체 평

3) 한일양국 맞벌이 부부의 산업시간

〈표 4〉 한일양국 맞벌이 부부의 주당 수당 받는 산업시간 및 수당 외 산업시간

	한 국		일 본	
	남 편	부 인	남 편	부 인
주당 평균 수당 받는 산업시간	2시간26분	53분	3시간03분	52분
행위자율(%)	30.5%	11.0%	38.0%	17.7%
행위자 평균 수당 받는 산업시간	7시간58분	8시간01분	8시간03분	4시간56분
주당 평균 수당 외 산업시간	4시간03분	1시간44분	3시간45분	1시간11분
행위자율(%)	46.3%	37.8%	41.8%	25.3%
행위자 평균 수당 외 산업시간	8시간44분	4시간36분	8시간59분	4시간40분

정규적인 근무시간 이외의 산업시간은 전체 주당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 한일양국 맞벌
 이 부부의 근무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는 산업과 수
 당을 지급 받지 않는 수당의 산업시간이 〈표 4〉에
 나타나 있다.

전체 평균시간을 볼 때, 한국 남편은 수당 받는 산
 업을 1주일에 평균 2시간 26분, 수당을 받지 않는 산
 업을 주당 평균 4시간 03분하고 있으며, 일본의 남
 편들은 수당 받는 산업에 주당 평균 3시간 03분, 수
 당 외 산업에 3시간 45분을 소비하고 있었다. 한국
 과 일본을 비교하면 한국의 남편들은 수당 받는 산
 업은 일본 남편들보다 적게 하고 수당 외 산업은 일

군 산업시간은 양국 부인들이 비슷한 시간을 나타냈
 으나, 수당을 받는 산업에 참여한 한국 부인은 11.0%
 로 행위자 평균시간은 8시간 01분이며 일본의 부인
 들은 17.7%가 참여하여 행위자 평균시간은 4시간 56
 분으로 한국 부인들의 산업노동시간이 길었다. 그러
 나 수당 외 산업에는 한국부인의 참여가 37.8%로 일
 본 부인의 25.3%보다 많았고, 참여한 사람의 수당
 외 노동시간은 한국이 4시간 36분, 일본이 4시간 40
 분으로 비슷했다.

이들이 수당을 받거나 받지 않고 산업을 하는 주
 된 이유는 업무의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수당을 받고 산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일 양

2) 행동의 평균시간과 행위자율, 행위자의 평균시간은 한국방송공사(1995),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참조하고, 이와 같은 지
 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矢野眞和(1996), 「生活時間の社會學」, 51-61쪽의 社會時間 및 個人時間에 대한 설명을 참
 조할 것.

국의 부부 모두 첫째가 일의 특성상 잔업을 해야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 밖에 수당을 받지 않고 하는 잔업 이유 역시 양국의 부부가 모두 같은 응답비율을 보였는데, 첫째는 일의 진행상 하지 않을 수 없다거나, 결국은 자신의 일이 되기 때문에 수당이 없더라도 잔업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 근로자들이 잔업을 하는 이유가 소득 증가를 위한 개인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요구 때문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직장에서 근로자에 대해 일의 요구가 많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2.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1) 수입노동시간에 대한 인식

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50%이상이었다. 부인들도 자신의 수입노동시간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나, 남편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길다고 응답해서 자신의 수입노동시간보다는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을 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한국과 일본 부부는 남편들의 노동시간은 길다고 느끼지만 부인의 노동시간은 적당하다고 느끼고 있다.

2) 수입노동시간의 가정생활 제약 여부

자신이나 배우자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하는가의 여부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에서 보면, 한국의 부부는 일본의 부부에 비하여 더 많은 부부가 자신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 배우자의 수입

<표 5> 한일 양국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에 대한 인식

(단위 : %)

		한 국		일 본	
		남 편	부 인	남 편	부 인
자신의 노동시간에 대한 인식	매우길다	18.3	14.3	31.6	11.4
	긴편이다	43.9	32.5	27.8	38.0
	적당하다	37.8	53.2	39.2	50.6
	짧다	0.0	0.0	1.3	0.0
배우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인식	매우길다	13.0	17.1	12.8	29.1
	긴편이다	31.2	45.1	33.3	30.4
	적당하다	55.8	36.6	53.8	40.5
	짧다	0.0	1.2	0.0	0.0

한일 양국 맞벌이 부부가 자신 및 배우자의 수입노동시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자신의 노동시간에 대해 한국 남편은 18.3%가 매우 길다고 느끼며 43.9%가 긴 편이라고 응답했다. 일본 남편은 '매우 길다'가 31.6%, '긴 편이다'가 27.8%로 한국 남편에 비해 일본 남편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이 매우 길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양국 남편의 60% 이상이 자신의 노동시간을 길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이들이 장시간노동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양국의 남편들은 배우자인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에 대해 적당

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고 느끼는 비율도 한국의 부부가 더 많았다. 특히 한국의 부부는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일본의 부부보다 높았다. <표 5>에서 한국의 남편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이 부인들의 노동시간에 비해 장시간노동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표 6>에서 보면, 한국남편은 부인의 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고 응답한 비율(67.5%)이 자신의 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고 응답한 비율(57.3%)보다 훨씬 높아서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에 대해 더 제약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수입노동시간의 가정생활 제약 여부

(단위 : %)

		한 국		일 본		양국차이	
		남 편	부 인	남 편	부 인	남편a	부인b
자신의 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	그렇다	57.3	77.9	45.6	41.8	$\chi^2 = 5.76$ P=.056	$\chi^2 = 25.03$ P=.000
	아니다	31.7	15.6	29.1	22.8		
	말할수없다	11.0	6.5	25.3	35.4		
배우자의 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	그렇다	67.5	48.1	36.7	48.1	$\chi^2 = 16.01$ P=.000	$\chi^2 = 0.28$ P=.986
	아니다	20.8	35.8	31.6	36.7		
	말할수없다	11.7	16.0	31.6	15.2		

a : 한국과 일본 남편응답의 교차분석

b : 한국과 일본 부인응답의 교차분석

한국의 부인 역시 〈표 5〉에서 남편의 노동시간은 길고(62.2%) 자신의 노동시간은 적당하다고 응답(53.2%)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고 응답한 비율(77.9%)이 남편의 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고 응답한 비율(48.1%)보다 훨씬 높았다. 즉, 한국의 맞벌이 부부는 남편의 수입 노동시간보다는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한국의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조희금, 1997).

반면에 일본의 부부는 한국의 부부에 비해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낮았다. 일본의 남편은 부인의 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고 응답한 비율(36.7%)이 자신의 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고 응답한 비율(45.6%)보다 낮았다. 부인 역시 자신의 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하기(41.8%)보다는 남편의 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48.1%)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서, 한국의 부부와는 다른 응답태도를 보였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한국의 남편은 일본의 남편에 비해 부인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으며($\chi^2 = 16.01$, $P < .001$), 부인도 한국의 부인이 일본의 부인에 비해 자신들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chi^2 = 25.05$, $P < .001$). 즉, 한국의 부부는 일본의 부부에 비해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

약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이들의 성역할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일본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비해 훨씬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남편과 부인 각각 $P < .001$ 수준에서 한국의 부부가 일본 부부에 비해 보수적이었다. (〈표 1〉 참조)

3) 수입노동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생활시간

〈표 7〉에서 보면, 한국 남편은 31.9%가 자신의 수입노동시간으로 인해 자신의 취미, 교양, 오락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에 대해서는 51.7%가 자녀 돌보는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한국의 부인은 42.6%가 자신의 수입노동시간이 자녀 돌보는 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배우자의 수입노동시간은 35.6%가 가족단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일본 남편은 42.4%가 자신의 수입노동시간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간은 자신의 수면시간이라고 했으며, 37.5%가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은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인은 28.1%가 자신의 노동시간이 자신의 수면시간 및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0.0%가 남편의 노동시간은 가족단란의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즉, 양국 모두 남편들은 자신의 긴 수입노동시간이 자신의 수면이나 여가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은 가정생활과 관련된 자녀 돌보기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인들 역시 자신들의 수입노동시간은 가정생활과 연결시켜 그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나, 남편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가족단란시간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국 모두 전일제로 취업한 맞벌이 부부라도 가정생활이 부부공동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森ます美, 1988; 이현아, 1994; 조희금, 1997).

별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보다 길었으며, 양국 남편들의 수입노동시간은 부인들의 노동시간보다 길었다. 특히, 한국 남편은 통근시간을 포함해 하루의 절반에 해당하는 1일 11시간 31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둘째, 양국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휴일의 형태에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맞벌이 부부는 주 1일 내지 1일 반의 휴일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맞벌이 부부는 주 2일 또는 격주 2일의 휴일을 가지고 있었다. 잔업시간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평균적인 잔업시간은 수당을 지급 받는 잔업은 일본 남편이 길고, 수당의 잔업은 한국 남편들이 많이 하였으며 부인들의 수당의 잔업은 양국에서 비슷한 정

〈표 7〉 수입노동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생활시간

(단위 : %)

		한 국		일 본	
		남 편	부 인	남 편	부 인
자신의 수입노동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생활시간	수면시간	21.3	13.1	42.4	28.1
	가사노동시간	8.5	29.5	12.1	28.1
	자녀돌보는 시간	27.7	42.6	15.2	22.0
	취미,교양,오락시간	31.9	11.5	21.2	18.9
	가족돌보기 시간	-	-	-	-
	가족단란의 시간	10.6	-	9.1	3.1
	교제시간	-	3.3	-	-
배우자의 수입노동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생활시간	수면시간	10.3	8.9	-	26.9
	가사노동시간	12.1	11.1	37.5	15.4
	자녀돌보는 시간	51.7	17.8	20.8	7.7
	취미,교양,오락시간	6.9	20.0	20.8	-
	가족돌보기 시간	1.7	-	-	-
	가족단란의 시간	12.1	35.6	20.8	50.0
	교제시간	5.2	6.7	-	-

V. 결론 및 제언

한국과 일본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분석하여 그들의 수입노동시간과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는 조사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국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은 일본 맞

도였다. 잔업 역시 양국 부인들은 남편들보다 적게 하였다. 잔업을 하는 이유는 양국의 부부 대부분이 개별가계의 경제적인 것보다는 직장에서의 일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었다.

셋째, 양국 맞벌이 부부는 남편들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길다고 느끼는 반면, 부인들의 노동시간은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일본 남편의 실제 노동시간이 한국 남편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일본 남

편들은 자신들의 노동시간이 '매우 길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높았다. 또 수입노동시간의 가정생활 제약 여부에 대해 한국 부부는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는데 비해 일본 부부는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을 제약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한국 맞벌이 부부가 일본 맞벌이 부부에 비해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수입노동시간으로 영향을 받는 생활시간 영역에 대해 양국의 남편들은 자신의 노동시간 때문에 자신들의 여가나 수면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반면, 부인들의 수입노동시간은 자녀 돌보기 시간(한국 남편)이나 가사노동시간(일본 남편)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한국 부인들은 자녀 돌보기 시간, 일본 부인들은 자신의 수면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양국의 부인들은 남편의 노동시간으로 영향을 받는 영역은 가족단란의 시간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즉 양국의 부부 모두가 전일제 맞벌이 가정이라도 가정생활의 책임은 부인에게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맞벌이 부부는 생활양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맞벌이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한일 양국의 맞벌이 부부 특히 남편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한국 남편은 1일 11시간 31분의 노동시간으로 주당 60시간, 연간 3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셈이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은 이미 과로사 등의 개인적인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일제 맞벌이 가정의 가정생활 책임은 부부가 공동으로 지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부인의 노동시간은 남편보다 적는데, 이는 가정생활에 대한 책임이 부인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정생활에 대한 책임을 부인이 전담하는 경우

이는 부인의 이중노동부담과 직장생활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나게 되어 취업한 기혼여성의 직업적인 성취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 제언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남녀의 노동자가 가정생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숙재(1995), 생활시간, 서울 : 학지사
-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1호, 31-46
-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1996), 한일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4호, 145-161
- 이기영·이연숙·조희금·이현아(1998), 남편의 직종과 조직내 성역할문화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2권 2호, 119-134
- 이현아·이기영(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1호, 145-160
- 조희금(1993),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3호, 101-112
- 조희금(1997),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1호, 1-14
- 조희금(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2호, 145-158
- 최영기(1991), 노동시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 및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2호, 172-190
- 日本労働省(1990), 「労働時間短縮に関する提言」
- NHK 放送文化研究所世論調査部(1995), 「生活時間の

- 「國際比較」, 東京: 大空社
- 鈴木泰(1993), 生活時間の日韓比較, NHK 放送文化研究所世論調査部(1995), 「生活時間の國際比較」, 140-210
- 伊藤セツ. 天野寛子. 森ます美. 大竹美登利(1983), 「生活時間」, 東京: 光生館
- 伊藤セツ. 天野寛子(1988), 「生活時間と生活様式」, 東京: 光生館
- 天野寛子. 伊藤セツ. 森ます美. 堀内かおる. 天野晴子(1993), 「生活時間と生活文化」, 東京: 光生館
- 伊藤セツ(1994), 女性労働者の労働時間と生活時間, 労働総研. 労働問題研究会 編, 「日本の労働時間」, 東京: 学習の友社
- 森ます美(1988), 長時間労働と家庭生活, 伊藤セツ. 天野寛子 共著, 「生活時間と生活様式」, 東京: 光生館
- 天野寛子. 天野晴子. 齊藤悦子. 松葉口玲子. 伊藤純(1996), 「世田谷區民の生活時間のジェンダー分析」, 東京: 世田谷ライフデザイン研究会
- 矢野眞和(1996), 「生活時間の社會學」, 東京: 東京大出版會
- Germer, J. L., Montalto, C. P., & Bryant, W. K.(1990), Work Patterns and Marital Status Change,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 11-1, 7-21
- Hill, M. S.(1985), Patterns of Time Use, Juster, F.T. & Stafford, F.P.(ed.), *Time, Goods, and Well-Being*, Univ. of Michigan, 133-176
- ILO(1996),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 Mata-Greenwood, A. (1992), an Integrated Framework for the Measurement of Working Time, STAT Working Paper No. 92. Geneva: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Robinson, J.P. 외, *Time for Life*에서 재인용
- Misunoya, T., Saito E., & Ito, S.(1996), A Time Study of Working Couples Living in Tokyo, Setagaya-Ku 1995 (Part 2) - The Actual Condition of Working Hours Including Overtime with No Pay, Holidays and Leaves, *J. of Home Economics Japan*, Vol. 47 No. 8 747-753
- Robinson, J.P. & Godbey, G.(1997), *Time for Life*, Penn State Press.
- Shelton, B.A.(1992), *Women, Men and Time - Gender Differences in Paid Work, Housework and Leisure-*, Greenwood Press.